

# 한러평화통일포럼 "이제는 러시아"

## 북러정상회담 앞서 열려 큰 관심 러시아 중요성 부각돼 '평창 물꼬'처럼 문화 스포츠 포럼도 가능할까 기대



▲ 다음주로 예정된 북러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3백여명의 인원이 자리를 가득 메운 자리에서 코르스톤 호텔내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약 4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사진/겨레일보

<겨레일보 www.koreans.ru 박지호 기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어제 18일 모스크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회장 유옥경)가 주관하는 한러평화통일포럼이 코르스톤 호텔내 차이코프스키홀에서 개최되었다.

다음주로 예정된 북러정상회담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남북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3백여명의 인원이 자리를 가득 메운 자리에서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약 4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한러관계 발전을 주제로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협력, 2부에서는 한러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 한국측에서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엄구호 한양대 교수,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준 국민대 교수, 이철수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이 참여했으며 러시아측에서는 글렘 이바센초프 국제관계이사회 부회장, 게오르기 틀로리아

과학아카데미경제연구소 아시아전략센터소장, 일리야 디아치코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 교수, 알렉산드르 티모닌 전 주한 러시아 대사, 류드밀라 자하로바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참여인원이 정치 경제 중심의 학자나 연구원 등으로 한정되어 다소 내용이 중복되고 스포츠나 문화쪽 방면은 전혀 도외시된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협력과 한러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가 알찬 내용으로 발표되어 청중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범식 교수는 미중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손해보는 것은 한국 러시아이고 경쟁적 상호작용은 대립구도를 재생산해냄으로 러시아의 안정적 지위를 상실시킨다는 점을 강조,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위상이 비슷하다는 신선한 시각을 제공해 관심을 끌었다.

더 나아가 이를 신교수는 '중간국 입장'이라고 규정하고 중간국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세력균형과 안정적 구

도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알렉산드르 티모닌 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 가스관의 한국유입시 미국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구체적 예로 들며 발표자들 가운데 이례적으로 미국의 방해가 남북러 관계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밝혀 흥미로움을 안겨주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나 남북이 서로 만나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그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도문제 전문가로 소개된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일성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북한 역시 남북철도를 러시아로 연결하는것은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철도사업은 2020년 이후에나 본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의 도시 시스템과 교육 및 교통시스템은 러시아식으로 북한의 도시개혁에는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가 에너지 식량 환경안보 차원에서도 한국과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잠재력은 서로 만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일하게 평통위원으로 참가해 발표한 이철수 위원은 한국과 러시아간의 협력에 있어 중소기업이 할수 있는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유라시아 한러공동인재배양센터 등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번 포럼은 짧은 시간의 행사이나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통일과 관계된 내용을 집약적으로 이해하는 장을 만들어 주었으며 참석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큰 흥미를 안겨준 행사였다.

평창으로 남북관계가 물꼬를 띄웠듯이 이번 행사의 성공은 참석자들에게 차기 행사에는 문화와 스포츠도 연결된 포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비취게 하고 있다. \*\*\*